





SEPTEMBER / OCTOBER 2024 통합의료원보 VOL. 85 09/10





순천향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2024. 09+10 VOL. 85

발행일 2024년 9월 13일

통권 85호

발행인 서유성(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 발행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편집위원 이미종, 배지연, 이상원, 안지영 주소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31길 31 연락처 02-710-3166 www.schmc.ac.kr **편집디자인** 피앤플러스 02-2269-5689 인쇄 (주)대한프린테크



표지설명

순천향대병원이 환자와 보호자 중심의 맞춤형 의료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신축 및 병동 리모델링 공사를 통한 쾌적한 환경과 안전하고 품격 있는 진료 환경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순천향대 구미병원이 '외래관'을 건립하여 환자들에게 시각적, 심리적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다.

06

FOCUS 1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외래관 건립 준공식 ' 개최



08

FOCUS 2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 살려낸 장성우 외과 교수·김길주 수술실 간호사



10

LOVE

"순천향 구미병원은 믿음이고 사랑이죠" - 변진수 심장내과 교수&김영희 환자



12

HISTORY

한국 현대의학의 성장에 바친 서석조 박사의 삶 『서석조 평전』 연재 4 - 서석조, 의사의 꿈을 품다



14

DOCTER

"저는 환자를 대할 때 항상 일어서서 인사드립니다" - 서울병원 이준희 외과 교수



18

VISIT

환자의 장애, 완벽한 재활 시스템으로 지원 - 부천병원 재활의학과



22

WITH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두 여고 학생회장의 멋진 '의기투합' - 채영은(온양여고 학생회장) &



24

ISSUE

- 민들레김치 유산균 WCFA19 (Wilac D001), 체중 감량에 효과

26

ISSUE

- 보건복지부 진료환경·의료서비스 평가 100점 만점 1등급 획득 쾌거
- '로봇재활센터' 개소



28

ISSUE

충청권 최초 '뇌동맥류 웹(WEB) 치료' 성공

30

ISSUE

- 구미병원 · 구미 금오라이온스클럽, 취약계층 환자 대상 의료비 지원 협약 체결
- 구미병원, 신규 교직원 대상 '의료인용 아동 학대 선별도구 FIND' 교육 개최

32

KNOWLEDGE

'백혈구 스펙트시티'로 하지 절단 위험 예측

34

KNOWLEDGE

순천향대 부천병원 국내 최고 '희귀질환 클리닉'

36

KNOWLEDGE

갑상샘암 파괴하는 '방사성요오드' … 안전해요!

38

KNOWLEDGE

극심한 통증 '요로결석' 증상 및 치료법

40

EQUIPMENT

로봇수술장비 다빈치Xi

NEWS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외래관 건립 준공식' 개최

환자 중심 진료환경 구축 … 지역민 건강과 안전 최우선

글·사진_ 구미병원 홍보실 제공

구미병원이 8월 28일 15시 향설 대강당에서 '외래관 건립 준공 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 사장, 서유성 중앙의료원장, 법인 산하 4개 병원장을 비롯하여 김장호 구미시장,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 등 기관·사회단체 장 등 1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행사는 ▲내외빈 소개 ▲경과보고 ▲환영사 및 축사 ▲기념촬영 ▲테이프 커팅식 등 의 순서로 이뤄졌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은 ▲ 층별 전문질환센터 구축 ▲진료 실 대기 공간 및 휴게공간 확대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을 포 함한 외래관 건립과 본관 리모델링 공사를 함께 진행했다. 외 래관은 지난 2022년 5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2년여간의 신축 공사를 마치고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연면적 9064.21㎡(증축 부분 6110.26㎡) 리모델링 부분 2953.95㎡)규모로 완공되었으 며 23개의 진료과와 13개의 특화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 존 건물 본관은 중증 환자 수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환자 실을 증설하고 입원환자들이 보다 쾌적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 록 전문 병동으로 탈바꿈하였다. 외래관은 본관에 있던 외래 진료실을 모두 이전해 각종 진료과와 검사실을 한곳에 집약하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외래관 건립 준공식에 참석한 내외 귀빈들이 커팅식을 하고 있다

여 원스톱 시스템으로 구축했다. 또한, 외래관과 본관을 잇는 연결 브릿지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환자의 이동 동선을 최 소화하여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등 환자 중심의 병원 환경을 조성했다.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은 "새 외래관 준공 및 중환 자실 확장 등으로 필수 의료가 필요한 많은 환자분에게 전문 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지역민들의 건 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민경대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장은 "외래 진료실과 검사실을 통합해 환자의 동선을 최소화하여 고객 중심 진료환경을 구 축했다"며 "순천향 인간사랑 정신을 바탕으로 전문 질환 중심 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필수 의료를 책임지는 병원으 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검사실 (소화기내시경센터)





검사실 (채혈실·외래검사실)



진료실 (대기공간)



"의료인으로서 사명 다해 기뻐"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 살려낸 장성우 외과 교수·김길주 수술실 간호사





장성우 외과 교수

지난 7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병원장 이정재) 의사와 간호사가 심정지 환자와 소아 응급 환자를 살려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장성우 순천향대서울병원 외과 교수는 7월 28일 오후 8시경 약수역 근처 야구 레슨장에서 경련을 하며 쓰러진 초등학생을 응급처치하고 병원까지 이송했다. 장교수는 옆에 있던 아이가 갑자기 쓰러지자, 곧바로 숨을 편하게 쉴 수 있게 자세를 고쳐주고, 혈압과 맥박 등을 확인했다. 곧이어 도착한 119구급차에 동승, 환자의 상태를 살피며 순천향대서울병원 응급실까지 함께 했다. 병원에 도착한 환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응급진료를 받고, 이틀간 입원 치료 후에 건강하게 퇴원했다.

장성우 교수는 "마침 가까운 곳에 우리 병원이 있었고, 소아청소년과 당직 전문의까지 계셔서 치료가 잘 된 것 같다"며 "우연한 기회에 의사로서의 사명을 실천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장성우교수는 순천향대 의대를 졸업하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권역 외상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권역 외상센터를 거쳐, 7월부터 순천향대서울병원 외과 중환자 전단전문의로 근무 중이다.





김길주 수술실 간호사

김길주 수술실 간호사는 7월 13일 병원산악회(산악회장 조성원) 등산 일정 중 심정지 환자를 응급 심폐소생술로 살려냈다.

7월 13일 토요일 청계산을 찾은 병원산악회 회원들은 산행을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

을 찾았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마당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을 발견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김길주 간호사를 비롯한 산악회회원들도 달려갔다.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던순간 김길주 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박민웅 시설팀 주임도 기도유지를 도왔고, 주변에서 119에 신고도 마쳤다. 환자는 곧 깨어나 정신을 차렸고, 김길주 간호사는 119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의 안정을 도왔고, 안전하게환자를 인계했다.





김영희 환자(72세)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챙기며 사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것이 삶을 살아가며 보람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의 일이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하는 일이었다. 환자들의 머리를 감겨주고, 발을 씻겨주고, 마시지를 해주는 일, 목욕을 도와주는 일 등, 김 씨에게는 일상이자 너무나 보람된 일이지만 누군가에는 너무도 하기 싫은 일일 것이다. 이런 봉사의 삶을 살아온 김 씨에게 갑자기 목에 이상이 왔다.

"심장 뛰는 것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동네 병원을 찾았죠. 심장에 분명 이상이 있다는 소견이었어요. 처방을 받고 약을 먹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심장은 정상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더라구요." 의사 역시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소견서를 써주며 순천향대 구미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 생각했던 김 씨도 덜컥 두려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었던 순천향대구미병원에 대한 신뢰는 적잖은 위안이 됐다.

환자를 저버리지 않는 병원

아침 일찍 병원을 찾은 김 씨는 당장 어려움에 당면했다. 오 전에는 이미 많은 환자로 인하여 외래진료가 마감된 상태였다. 하지만 구미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상황을 저버리지 않았다. "마감이 끝났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다시 집에 갔다가다시 오기도 힘들었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사정을 들은 의료진은 저를 응급실로 보내서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그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도 말이죠."이 때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치료한이는 바로 심장내과 변진수 교수였다. 열악한 의료진 상황에서도 환자의 진료와 시술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너무나 진심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 주었고 신속하게 제 상 태를 체크해서 빠른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이런 구미병원 의료진과 교수님의 빠른 대처와 배려가 없었다면 상황이 달 라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 씨는 '상세 불명의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곧장 시술이 진행됐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빠른 대처는 필수였다. 환자의 나이와 상태를 고려할 때 갑 작스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뇌 질환도 발생할 수 있는 상 태였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신속하고 세밀하게 환자의 상태와 증상을 살핀 변진수 교수는 관상동맥스탠트삽입술을 시행했다. 시술은 성공적이었고, 환자는 15년째 뇌 질환으로 고통받는 남편을 봐왔기에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렸다.

"뇌 질환이 올 수 있다는 얘기에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10 년 넘게 뇌 질환으로 투병하는 남편을 바로 옆에서 지켜봐야 했거든요. 본인도, 그리고 주변 가족들에게도 너무도 큰 아픔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시술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시술 후 24시간 만에 퇴원을 한 김씨는 의료진과 변 교수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교수님이 너무나 절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막상 시술에 들어갈 때는 어떤 두려움이나 의심도 사라졌습니다. 이전에도 골절 등 여러 문제로 구미병원을 찾았을 때도 너무나 완벽하게 저를 돌봐주었기에 더욱 큰 믿음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항상 순천향대 구미병원은 사랑이자 믿음"이라며 "이처럼 더 발전된 순천향대 구미병원을 보며 다시금 더 큰 신뢰와 믿음, 그리고 사랑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 현대의학의 성장에 바친 서석조 박사의 삶 'SEASON 2'를 연재합니다.

순천향대학교 학교법인 동은학원은 2021년 서석조 박사 탄생 100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향설서석조탄생100주 년기념사업회'를 발족하여 '서석조 평 전'을 2021년 봄에 출간했다. 이 책은 서석조 박사의 활동이 지닌 의미를 의 사학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 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서석조 박사의 장남인 서교일 이사장 을 비롯한 수많은 연구진이 참여하여 국내외의 수집된 실증적 자료 검토와 인터뷰를 통한 자료를 박지영, 황교련 이 정리 저술했다. 본지는 한국 현대의 학의 성장에 일생을 오롯이 바친 서석 조 박사 삶의 완결편인 '서석조 평전'을 '서석조 박사 탄생 100주년 기념 SCH 플랫폼'의 재발견에 이어 연재한다.

서석조, 의사의 꿈을 품다

아버지 서경선에게 의학은 꼭 익혀 야 할 근대적 문물로 여겨졌다. 그 의 이러한 꿈은 서순자와 서석조에 게도 영향을 미쳐서, 둘 다 의사가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근대적 교육에 익숙했던 서석조와 서순자 쪽이, 오히려 부친 보다 먼저 의학을 공부해야겠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1934년 서석조는 대구고등보통학 교(훗날의 경북고등학교)에 입학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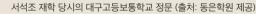
대구고등보통학교 3학년(1937년) 당시의 서석조 (출처: 동은학원 제공)

였다. 대구고보는 조선에서 경성제일고보와 평양고보에 이어 세번 째로 설립된 공립 고등보통학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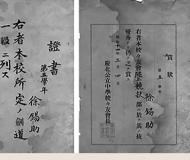
서석조가 고등보통학교 시절 배운 과목의 종류는 실업 과목을 제 외하면 보통학교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고보 시절 서석조는 건 장한 학생이었다. 고보 2학년 때인 1935년 그는 학교 대항 검도부 시합에 부장으로 출전하였고, 3학년때인 1936년에는 유도와 검도 에서 단증을 받았다.

또한, 그는 교내 야구대회에 출전하기도 하였으며, 1936년 7월 22일 부터 23일에 걸쳐 이틀간 개최된 대구공립상업학교(현재의 대구상 원고등학교) 및 동래고등보통학교(현재의 동래고등학교)와의 야 구 경기에서는 우수 선수로 뽑히기도 하였다. 4학년 때인 1937년 에는 유도 2단을 따고 장대높이뛰기 학교 대표선수로 출전하였으









서석조가 경북중학교 5학년 당시 받은 검도 일급 증서와 육상경 기 입상 상장 (출처: 동은학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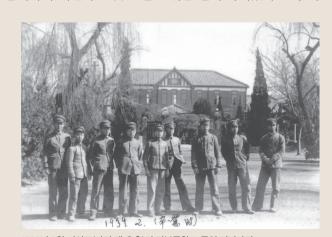
며 5학년 때에는 5,000m 달리기 학교 대표 선수로 선발되는 등 서석조는 다방면의 운동에서 두각 을 드러냈다.

서석조는 입시를 앞둔 4학년 무렵부터 다시 학업에 열중하기 시작하였고 1939년 3월 전교생 약 100여 명 가운데 8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제시기에 의학을 가르치던 가장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기관인 제국대학 의학부에 진학하기에는 부족한 성적이었다. 서석조가 졸업한 해인 1939년 당시 조선에 설립된 유일한 제국대학인 경성제국대학 예과에는 조선의 중등교 육기관을 모두 합쳐서 74명만이 합격하였고, 지방에서 나름대로 명성이 있던 대구고보에서는 경성 제대에 단 한 명의 합격생도 내지 못하였다.

입시 실패의 고배를 마신 서석조는 일본 유학이라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당시 조선에는 경성제대 를 제외하면 비슷한 수준의 명문 의과대학이 거의 없었지만, 일본에는 경성제대와 비슷한, 혹은 그 이상의 수준을 지닌 의과대학들이 여럿 있었던 만큼 진학의 선택지가 훨씬 넓었다. 물론 한국에서 쭉 커 왔던 서석조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입시 준비까지 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학교의 영향으로 근대 문물의 힘을 두 눈으로 확인한 서 석조에게 가장 우선시된 것은 일본과 같 은 타지로 가서라도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실력을 길러 오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실력을 키우는 것만이 서석태 의 허무한 죽음과 같은 비극적인 일로부 터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였 고, 더 나아가 열악하고 억압적인 현실 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지는 듯하였다 ■501



1939년 2월 서석조(사진 맨 우측)의 경북중학교 졸업 기념사진 (출처: 동은학원 제공)



"저는 환자를 대할 때 항상 일어서서 인사드립니다"

약대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최고의 외과의로 거듭나

자신의 진로를 변경해 성공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의 이준희 외과 교수 역시 이런 케이스다. 중앙대학교 약대를 졸업하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석사, 카이스트 의과대학원 박사과정을 거쳐 이제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최고의 외과의로 거듭났다. 젊은 의사인 이 교수는 의사라는 직업을 너무도 사랑하며 여전히 공부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글_ 전진용 사진_ 전용칠

대전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을 보낸 이 준희 교수는 부모님들 걱정 한번 끼친 적 없는 모범적인 학창시절을 보냈다.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책임감 있게 해내는 성격이었다. 소위 '굿보 이'로 불릴 정도로 집과 학교 외에는 눈을 돌리지 않을 만큼 성실했다.

"아버지께서 직업군인으로 장교를 역임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소위 에프엠(FM, 야전교범) 적인 생활을 보고배웠습니다. 엄격한 아버지의 덕분에더욱 모범적인 생활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제 성격과 생활 습관이 자연스레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모범적인 생활만큼이나학창시절이 교수의 성적은 항상 우수했다.

"어느 때부터인가 자연계로 진로를 선택하고 좋은 성적을 유지한다면 약대나 의대를 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성격에도 잘 맞으리라생각했고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약대에서 의대로, 새로운 꿈을 키우다

중앙대학교 약대에 입학한 이 교수는 최선을 다해 성실히 약학을 공부했지 만, 항상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 었다. 아마도 의대에 대한 미련이었던 것 같다고 이 교수는 회상한다.

"약학과 약사 역시 매우 중요한 학문이자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학을 열심히 공부할수록 조금은 부족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약사보다는 의사가 되어 보다 직접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가슴 한쪽에 쌓여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 교수가 선택한 것은 약대를 졸업하고 의학전문대학교에 입학해 의사로서의 새 삶을 꿈꾸는 것이었다. 이 교수는 그 성실한 성격으로 다시 열심히 도전한 결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 할 수 있었다.

"막상 의학전문대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하다 보니 어렵다기보다는 너무나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마 대입을 준비하던 고3 때나 대학원을 준비하던 때보다 오히려 대학원 입학 후 의학 공부할 때가 몇 배는 더 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교수가 의학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이유는 매우 간단하고 명료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을 알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수없이 들었습니다. 환자들의 질병에 대해 하나씩 알아 갈수록 저의 공부 강도는 더욱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라도 더 배우고 알아 가기 위해 노력했거든요."

치유가 어려운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를 볼 때마다 드는 안타까움은 이 교수를 더욱 의학 공부에 몰두하게 했다. "저 역시 질병으로 고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때 환자를 마음으로 대하는 의사 선생님들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직접 환자로서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더 좋은 의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환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다가가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저주는 의사 될 것

환자에 대한 사랑은 그가 최고의 의사가 되는 촉매제가 됐다. 크리스천인 이 교수는 기독학생회 활동을 하며 의료봉사도 열심히 참여했다. 자신이 공부한 지식을 통해 더 많은 환자를 돌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환자를 대하면서 의술은 기

본이되,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병으로 힘든 삶을 살고 고통을 받는 환자들에게 이런 의사의 손길은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이 교수는 전공과목으로 외과를 선택했다. 그 이유는 외과는 수술뿐 아니라 외과, 내과적 모든 지식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과이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은 힘든 과라고 기피하는 외가가 이 교수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분야로 느껴졌다.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손도 잘 써야 한다는 점이 저는더 좋았습니다. 또한, 환자분들의 생명을 드라마틱하게 살릴 수 있는 분야라는 점은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었습니다."

전 세계 발병률 1위 유방암 전문가로 '우뚝'

외과 분야 중에서도 이 교수의 최고 전문 분야는 유방암이다. 국내 여성 뿐만아니라 남녀를 통틀어 전 세계에서 발병률 1위가 바로 유방암이다. "유방암은 가장 쉽게 발병하고 또 더욱 증가하고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벤치 투 베드사이드(benchto-bedside)라 하여 가장 최신의 기술이 가장 빠르게 적용되는 질병입니다.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하고 수술하고 수술 후에도 다시 치료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또한, 최신 기술에 관한 연구도 지속하여야 합니다. 이런 점들이 저를 유방암에 더욱 관심 갖게 했습니다."

최근에는 유방암 로봇수술에 관해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로봇수술은 전립선암이나 대장암 등에 보편화된 반면 유방암에 적용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도 이 교수 부임과 함께 2022년 처음 유방암 로봇수술이 도입됐다. 이 교수가 이 과정에서 직접 모든 시스템을 세팅했다.

"오늘까지 유방암 로봇 수술이 100 케이스가 됐습니다. 2년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달성한 수치이고, 결과면에서도 환자에게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도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거든요. 서울병원이 유방암수술에 있어서 최고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봇수술을 통한 정교한 수술이 가능해지면서 환자들의 만족도는 나날이 높아졌다. 미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수술이기에 전체 환자의 95% 이상에 달하는 여성 환자들에게는 유방암 로봇수술이 최고의 수술로 자리 잡았다. 서울병원에 유방암 로봇수술을 바로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 삼성서울병원에서 전공의와 전무의 과정을 거치면서 로봇수술 기술에 대해 열심히 배우고 연구했기에 가능했다.

선배 교수를 보며 환자에 대한 사랑을 느끼다

지금까지 이 교수를 이처럼 성장시켜 최고의 전문의로 만들어 준 가장 힘은 환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이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지난 2022년 부임한 후 이 교수가 가장 먼저 감동 받은 것은 선배, 동료 교수들의 환자에 대한 마음이었다.

특히 서울병원 최고의 외과 명의 중 한명으로 꼽히는 이민혁 교수의 환자 사랑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지금 제가 직접 모시고 있는 이민혁 교수님의 환자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70세가 넘은 연세에도 항상 환자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완벽한 수술로 병을 치료해 주시고,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심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환자의 경제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려해 환자를 위해 주십니다. 이제는 저에게는 가장 본받고 싶은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 교수 역시 환자 사랑과 존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환자와 의사와의 만남에서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 대할 때 항상 일어서서 인사를 드리고 반갑게 맞이해 드립니다. 처음 따뜻 하게 환자분을 맞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인지 환자분들이 저를 아 주 편하게 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실력 없는 의사의 환자 사랑은 '교만'

이 교수는 이처럼 환자에 대한 사랑을 중시하지만, 그보다도 항상 우선시 되는 것이 있다. 바로 의사로서의 '실력'이다. "환자에 대한 사랑,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랑은 오히려 '교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최신 트렌드와 연구에 매진해 실력을 갖춘 다음 환자에 대한 사랑이 더해졌을때 완벽한 치료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이 교수는 지금도 더 많은 실력을 갖추기 위해 시간을 쪼개어 연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퇴근하고 가면 두 아이를 돌봐야 하거든요. 아이 모두가 잠든 이후 늦은 밤부터 새벽 시간이 제가 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나만의 시간입니다."

이 교수의 앞으로의 목표는 그리 거창하게 들리지는 않는다. 다른 병원에서는 받을 수 없는 최선의 진료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이를 위해 더 더욱 공부와 연구를 멈출 수 없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이전에 더 큰 대형병원에서의 근무 경험이 있는 이 교수는 순천향대 서울병원 부임 후 더 편안한 마음으로 연구와 진료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병원과는 분위기가 너무 달랐습니다. 이전 병원은 다소 개인적인 분위기였다면 순천향대 서울병원은 첫날부터 모든 의료진이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이런 병원의 분위기는 환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환자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환자 역시 편안한 마음으로 의료진을 대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의사를 꿈꾸고 있는 후배들에게는 "의정갈등 등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며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자신 나름의 노력을 지속한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66

오늘까지 유방암 로봇 수술이 100 케이스가 됐습니다. 2년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비해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거든요. 서울병원이 유방암 수술에 있어서 최고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9



공부를 하면 할수록 환자를 돌보기

알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수없이

들었습니다. 화자들의 질병에 대해

하나씩 알아 갈수록 저의 공부

같습니다. 하나라도 더 배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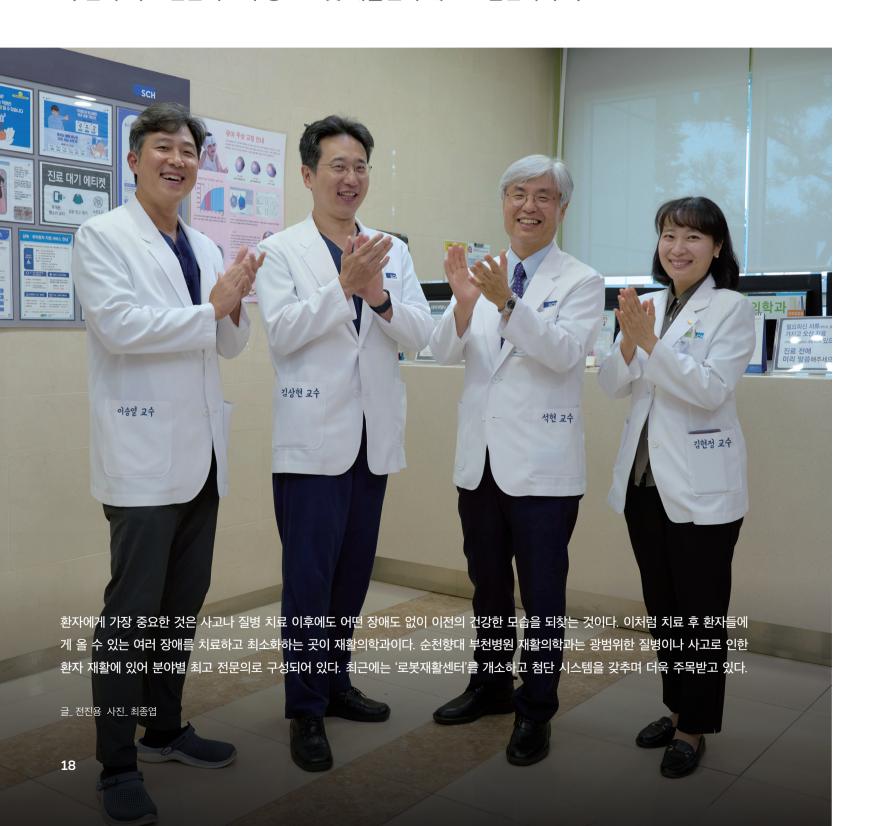
알아 가기 위해 노력했거든요.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을

강도는 더욱 높아졌던 것

환자의 장애, 완벽한 재활 시스템으로 지원

각 분야 최고 전문의로 구성… 로봇 재활센터 개소로 첨단화 구축



순천향대 부천병원 재활의학과는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과 전공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 활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환자 진료와 재활에 힘쓰고 있다.

무엇보다 환자들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고 최대한 기능 회복을 하도록 도와주는데 각자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런 재활의학과의 노력으로 재활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뇌신경·신경근골격계 재활 등 최고 전문의로 구성

주요 진료 분야로는 뇌졸중이나 외상성 뇌손상 이후 발생하는 기능이상을 치료하는 뇌신경재활과 척추나 사지의 근골격계의 질환으로 인한 기능이상과 통증을 치료하는 신경근골격계 재활이 있다.

또한, 근전도 검사를 통해 신경 및 근육의 질환을 진단하는 전기진단학, 척수손상의 재활, 암재활, 소아재활, 노인 재활, 스포츠 재활 등 광범위한 재활 치료가 이루어져 매우 뛰어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부천병원은 이런 모든 재활 분야에 있어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고의 전문성을 자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끊임없는 연구 활동을 통해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여러 관련 학회의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등 많은 연구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 밖에도 정기적인 자체 세미나 및 토론회 등을 통해최고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데 힘쓰고 있다.

부천병원 재활의학과는 모든 교수진과 팀원들의 놀라운 팀워크와 다른 과들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에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하며 최고의 의료진으로 자리매 김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간병로봇 지원사업' 선정

부천병원이 지난 4월 '간병로봇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재활의학과는 중추신경계 및 근골격계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로봇보행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간병로봇 지원사업'은 간병비·돌봄 인력 업무 부담 등 사

회적 문제 해결과 질 높은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한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재활의학과는 로봇재활센터를 구축하고, 착용형 및 엔드이펙터(End-effector, 로봇 말단 장치가 환자 발이나 다리와 접촉하여 보행을 보조하는 방식)형 보행재활로봇을 도입했다. 뇌손상, 척수손상, 말초신경손상, 근골격계 손상, 발달장에 등으로 인해 보행이 어려운 소아 및 성인 환자에게 맞춤형 보행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또, 재활의학과는 다양한 질환 및 상태의 환자에게 보행재활로봇을 적용하고 치료 전후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안전성과 효과성, 만족도를 검증해 나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행재활로봇의 적응증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로봇재활센터'에 최신 보행재활로봇 2종 도입

부천병원은 지난 7월 '로봇재활센터'를 정식 개소했다. 이와 함께 최신 보행재활로봇 '엔젤렉스'와 '모닝워크'를 도입해 선보였다.

착용형 보행재활로봇 '엔젤렉스'는 보행 장애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평지 및 계단에서 지속적인 보행훈련을 도와주는 웨어러를 타입의 보행보조로봇이다. 일어서기, 앉기,서 있기, 걷기,계단 오르내리기, 스쿼트, 평지 보행 등 총 7가지 보행훈련 모드를 제공하며, 지면 접촉 센서가 환자의보행 의도와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섬세한 관절 보조력을 제공한다. 또,실시간 훈련데이터 측정과 사용자별보행 패턴 및 능력 분석 기능을 갖추고 있어 체계적인 보행훈련이 가능하다.

엔드이펙터형 보행재활로봇 '모닝워크'는 착석형 체중 지지 방식으로 치료 준비 시간이 짧고, 중증 소아 환자도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모드를 지원해 안전하고 편리하다. 속도 가변, 궤적가변, 구간반복, 부분궤적 등 다양한 능동보행 모드로 효과적인 단계적 치료가 가능하다. 특히 흥미로운 가상현실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치료 효과를 높이고, 관절 각도와 지면반력, 체중지지 및 족저압 분포, 균형 감각 등이 실시간 모니터링된다.

환자 위한 최고 수준 재활의학 제공

석현 재활의학과 교수



부천병원 재활의학과를 이끄는 석현 교수는 무엇보다 환자들에게 최고 수준의 재활의학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재활 의학은 일반 진료나 치료와는 사뭇 다른 제3의 의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이 최대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재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진 역시 이에 걸맞은 최고의 실력을 유지해야 가능합니다. "주로 중추신경계 환자들을 돌보는 석교수는 전신 마비로 누워서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을 볼 때도 많다. 그만큼 이런 환자들을 조금이나마 더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재활에 힘을 쏟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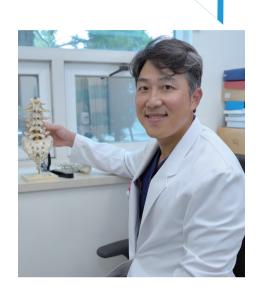
"전시 마비 환자분들의 소원은 걸어서 병원을 나가는 것일 겁니다. 하지 만 이런 환자의 상당수는 누워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많거든요. 이런 환자 한 분이 재활 4주 차에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감동한 보 호자가 직접 손편지를 써주며 감사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재활의학 의사 로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추억으로 기억됩니다" 석 교수는 "많은 환자가 우울감 등을 느끼며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재활의학과는 단순한 환자 치료뿐 아니라 이런 환자들의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는 재 활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개소한 로봇재활센터 등을 활용 한 더 많은 노력으로 최고의 재활의학으로 환자들을 도울 것"이라고 덧 붙였다. 착수손상 등 중추신경계 환자들과 근골격계 재활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이승열 교수는 주로 사지마비나 하지마비들의 재활을 맡고 있다. 가장 힘든 점은 다른 질병과 달리 1년, 혹은 그이상 재활 기간이 필요한 환자들을 설득시키고 이 기간 동안환자들이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착수손상 재활환자들은 매우 긴 재활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환자의 회복속도가 매우 더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에게 재활 치료를 이해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교수는 오랜 기간의 재활 치료를 통해, 다시 환자가 행복한 가정과 직장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며 재활의학 의사로서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고 전했다. "최근 경추 척수에 종양이 있던 환자였습니다. 종양 수술을 받았지만 전신 마비가 된 환자였는데 재활 치료를 통해 훗날 스스로 걸어 병원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교수는 "오랜 재활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인내심과 끈기로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망과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함께 위로와 공감을 나누고 싶습니다"라고강조했다.

밝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환자 보며 큰 보람

이승열 재활의학과 교수



가족의 마음으로 치료하고 보살필것

김현정 재활의학과 교수

주로 소아재활과 외상성뇌손상 재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정 교수는 재활의학과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재활의학과는 환자의 신체나 장기 일부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전반적인 모든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과이기에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하 지만 그만큼 더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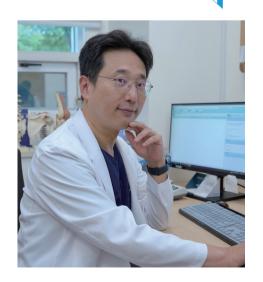
김 교수는 다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은 4개월 소아를 재활을 통해 고쳤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다고 전했다. 적절하고 빠른 재활로 인해한 아이가 정상 발달을 할 수 있게 된 케이스기 때문이다. "다양한 종류의 재활환자를 접하지만 소아환자나 자포자기하고 우울증을 겪던 환자가 재활에 성공해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에 돌아갈 때 재활의학과 교수로서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김 교수는 "뇌성마비나 소아환자의 유전질환 등은 장기적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며 "이런 어린 소아 환자를 대할 때는 환아 부모님의 마음으로 환자들을 보살피고자 노력한다"고 전했다.



환자에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 주려 노력

김상현 재활의학과 교수



주로 뇌 손상으로 인한 재활 치료는 맡고 있는 김상현 교수는 너무 낮은 수가로 인해 환자가 제대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안타까 움을 전했다.

"국내는 여전히 수가체계에 있어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때, 그리고 치료를 해 주기 힘들 때가 가장 재활의학과 의사로서 힘든 부분입니다" 이런 안타까 움과 더불어 환자를 통한 보람과 기쁨 또한 많은 곳이 재활의학과라고 저했다

"교통사고로 인해 외상성뇌손상이 심한 어린 환자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힘든 치료였지만 차츰 상태가 호전되어 앉을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는 걷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환자가 이제 몸이 회복되어 대학에 들어 갔습니다. 이런 환자를 보면 한 사람의 미래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김 교수는 환자와의 소통이 재활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 강조했다. "재활 의사로서 치료가 힘든 환자라도 환자 본인과 보호자에게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환자와 보호자의 긍정적인 생각은 실제로 더 빠른 재활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는 "환자를 대할 때는 의사로서 항상 환자의 말을 경청하고 함께 공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두 여고 학생회장의 멋진 '의기투합'

채영은·문지원 학생, 양교 학생들과 함께 모금 통한 기부 사업 진행



많은 이들이 알게 모르게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는 기부를 하고 있다. 이런 아름다운 기부활동은 대부분 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사업가를 비롯한 어른들의 몫이었다. 하지만 고등학생들 스스로 힘든 이웃들을 위한 기부활동을 기획하고 이를 실천한 사례가 있어 지역사회에 따스한 온정을 전파하고 있다. 바로 채영은 온양여고 학생회장과 문지원 한올고 학생회장의 이야기다.

글_ 전진용 사진_ 안용현

채영은 양과 문지원 양은 동갑내기 고3 수험생이다. 두 명모두 모범적 학교 활동과 우수한 성적으로 각 학교의 학생회장을 맡고 있다. 시험준비와 여러 학생회 활동으로 바쁜나날을 보내던 두 학생은 한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사회에 공헌해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나가고 싶다는마음이 서로 닮았다. 지역 내 단 두 곳뿐인 여고의 두 학생회장이 이렇게 의기투합을 하게 됐다. 지역 내 연합학생회활동 등으로 친분이 있던 이 두 학생은 함께 고민해 다른 학생들과 다 함께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거창한 프로젝트는 아니었지만, 이들에게는 너무도 의미 있는 기획이었다.

자체 디자인 한 '키링'을 제작 판매해 기부금 마련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키링을 직접 디자인해서 학교 프리마 켓에서 판매하는 것이었어요. 학생회를 통해 학교에 승낙을 얻어 약 400개의 키링을 제작 학교에서 판매했어요. 이런 기부를 통해 학생들 가슴에 작은 울림을 줄 것이라 믿었습 니다."

호응은 너무도 좋았다. 예산문제로 많은 키링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많은 학생이 스스로 동참해 주었으며 교직원들도 함께하며 격려했다.

채 양은 "뜻깊은 활동이라고 격려해 주시는 선생님, 한 반의 모든 제자에게 키링을 선물한 선생님 등 고마운 격려와 관 심이 우리의 작은 기부를 더욱 크게 빛나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기부는 통해 얻은 금액은 약 80만원 정도다. 두 학교의 학생회장은 고심 끝에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응급 센터와 월드비전 해외사업에 이 금액을 기부키로 했다. 문 양은 "순천향대 천안병원 관계자와의 면담 때 큰 금액이 아 님에도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입시를 앞둔 채 양의 꿈은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되는 것이

사회 공헌 꿈꾸는 두 소녀의 아름다운 우정

다.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저는 지금까지 주변의 많은 도움을 받으며 자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이제 사회에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사회현상에서 바라보는 '사회 역학'이라는 책을 읽고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후부터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되어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 양 역시 본인 스스로 의미 있는 일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 소방관, 군인 같이지역사회에 직접 몸으로 공헌하는 직업이나 아이들 교육을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교사 등이 원하는 직업이다.

"이번 기부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나눔의 마음, 그리고 주위의 많은 격려 모두 이 사회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는 일이라 느꼈거든요. 졸업 후에도 사회에 의미 있는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채 양과 문 양은 이번 기부활동에 대해 서로에게 공을 돌렸다.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아낌없이 전했다.

채 양은 "기부활동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준 문 양과 한 올고 학생들에게 너무나 감사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문 양은 "이 사업을 권유하고 함께 계획해 작지만 의미 있는 일로 만들어 준 채 양과 온양여고 학생들에게 고맙다"는 말로 화답했다. 장차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이 두 소녀의 앞날이 벌써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민들레김치 유산균 WCFA19 (Wilac D001), 체중 감량에 효과

김민지 순천향대서울병원 가정의학과교수팀 발표





김민지 순천향대서울병원 가정의학과교수

민들레 김치 유래 유산균인 WCFA19 (Wilac D001)가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체지방량과 체지 방률 감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지 순천향대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유병욱, 배성환)과 신 진영 건국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이 WCFA19(Wilac D001)로 만든 유산균 캡슐을 복용했을 때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2021년 6월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 104명의 과체중, 비만한 성인을 대 상으로 다기관, 이중맹검, 무작위, 위약대조군 연구를 진행했다. 실험군이 40명, 위 약군이 34명이었다. 유효성 지표는 DEXA를 이용했다.

총 74명 참가자의 체지방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과체중, 비만 대상자는 경구 보충 제 섭취 12주 후에 체지방량이 633g(±1,396g) 감소하였고, 대조군은 59g(±1,120g) 증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체지방률도 시험군은 0.41(±1,22)% 감소하였고, 대조군은 0.17(±1,21)% 증가하여 섭취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김민지 교수는 "김치의 발효단계에서 발견되는 WCFA19 유산균은 체중 및 체지 방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연구를 통해 민들레김 치 유래 유산균인 WCFA19가 과체중 이상인 건강한 성인에서 체중감소와 함께 체지방량, 체지방률 감소에도 효과 있음을 확인한 연구"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의 논문은 2024년 4월, 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에 '과체중, 비만 성인에서 WCFA19의 체지방 감소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연구(Efficacy and Safety of WCFA19 (Weissella confusa WIKIM51) in Reducing Body Fat in Overweight and Obese Adults)'란 제목으로 게재했다.

ISSUE 중환자실·마취·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00점 만점 1등급 획득



중환자실·마취·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00점 만점 1등급 획득



순천향대 부천병원 하태순 중환자실장이 본관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처치하고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발표 '4차 중환자실·3차 마취·10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100점 만점으로 1등급을 획득, 안전한 진료환경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번 4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는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수,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수, ▲중환자실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 여부 등 7개 지표를 평가했다. 부천병원은 특히 이번 4차 평가에서 평가지표로 새롭게 도입된 '중환자실 사망률' 지표에서 2.5%로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았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평균 중환자실 사망률인 6.5%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우수한 수치다.

3차 마취 적정성 평가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 시간, ▲회복 실 운영 여부, ▲마취 전 환자 평가 실시율 등 9개 지표를 평가했다. 부천병원은 14 명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7종의 특수 장비를 갖추고, 통증클리닉과 진정센터, 회복실, 무수혈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심폐 혈관 수술, 소아 수술, 간·신장 이식 수술, 뇌혈관 수술, 다빈치 로봇수술 등고위험 마취에서도 안전하고 수준 높은 마취를 제공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10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는 10회 연속으로 1등급을 획득하는 기염을 토했다.

주요 평가지표는 ▲전문인력 및 시설 구성 여부, ▲혈전용해제 투여율, ▲조 기 재활 평가·실시율 등 6개 였다. 부천 병원은 지난 7차 평가부터 4회 연속으 로 상위 20%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 어 '급성기 뇌졸중 치료 잘하는 병원'임 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

문종호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이번 4차 중환자실·3차 마취·10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00점 만점으로 1등급을 받은 것은 우리 병원의의료진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다. 앞으로도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있도록 의료서비스 질 개선과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로봇재활센터' 개소

보행 장애 환자들에 '보행재활로봇'으로 재활 훈련 제공



30일 열린 '순천향대 부천병원 로봇재활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축하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7월 30일 '로봇재활센터'를 개소식을 개최하고, 다양한 보행 장애 화자의 빠른 회복을 지원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 문종호 병원장, 김병성 진료부원 장, 이유경 연구부원장, 석현 재활의학과장, 이종식 사무처장, 김승원 재활치료팀장, 김현정 재활의학과 교수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지난 4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간병로봇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최신 보행재활로봇 '엔젤렉스'와 '모닝워크'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뇌손상, 척수손상, 말초신경 손상, 근골격계 손상, 발달장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보행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맞춤형 보행 재활 후련을 제공하고 있다.

착용형 보행재활로봇 '엔젤렉스'는 보행 장애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평지 및 계단에서 지속적인 보행 훈련을 도와주는 웨어러블 타입의 보행보조 로봇이다. 총 7가지 보행 훈련 모드를 제공하며, 지면 접촉 센서가 환자의 보행 의도와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섬세한 관절 보조력을 제공한다. 엔드이펙터형 보행 재활로봇 '모닝워크'는 착석형 체중 지지 방식으로 치료 준비 시간이 짧고, 중증 소아 환자도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모드를 지원해 안전하고 편리하다. 속도가변, 궤적가변, 구간반복, 부분궤적 등다양한 능동 보행 모드로 효과적인 단계적 치료가 가능하다.

문종호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착용형 및 엔드이펙터형 보행재활로봇을 동시에 갖춘 부천 지역 내 대학병원은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유일하다. 앞으로도 중추신경계·근골격계 손상으로 보행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30일 '순천향대 부천병원 로봇재활센터 개소식'에서 서 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이 엔드이펙터형 보행재 활로봇 '모닝워크'를 시연하고 있다.



충청권 최초 '뇌동맥류 웹(WEB) 치료' 성공

순천향대 천안병원 박종현 교수



박종현 교수와 천안병원 신경외과 뇌혈관내치료팀의 시술 장면

순천향대 천안병원 신경외과 박종현 교수가 최근 뇌동맥류 치료의 신의료기술인 '웹(WEB) 치료' 를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충청 지역에서는 최초 치료사례이며 난이도가 높은 신의료 기술이라 전국적으로도 치료사례가 많지 않다. 박 교수가 시행한 웹(WEB: Woven EndoBridge) 치료는 2018년 미국FDA 공인을 받은 최신의 뇌동맥류 혈관내 시술 방법이다.



신경외과 박종현 교수

니티놀 와이어(nitinol wires)로 촘촘하게 엮은 금속망을 공처럼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 속에 넣어 채움으로써 혈류를 차단해 파열위험을 제거해 주는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기존의 결찰술과 코일색전술을 대체하는 뇌동맥류 치료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박종현 교수는 "결찰술은 머리를 열어야 하고, 코일색전술은 재발위험과 목이 넓고 큰 동맥류와 박리성 동맥류 치료에 부적합한 점 등 여러 단점이 있다"면서, "반면 웹(WEB) 치료는 머리도 열지 않고, 재발률도 낮고, 다양한 뇌동맥류 질환에 적용할 수 있는 환자에게 매우 유익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다"라고 설명했다.

뇌동맥류는 뇌동맥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뇌혈관 질환이다. 전조증상 없다가 갑자기 파열돼 생명을 잃게되는 '머릿 속 시한폭탄'으로 불린다. 시술을 받은 환자는 천안에 거주하는 노ㅇㅇ씨 (59세, 여)로 다른 병원에서 뇌동맥류 진단 후 천안병원으로 7월 16일 전원 돼 8월 1일 웹(WEB) 치료를 받고 8월 3일 건강하게 퇴원했다.

박 교수는 "이번 시술에 참여해 도움을 준 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외과 박석규 교수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 웹(WEB) 치료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더욱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웹(WEB: Woven EndoBridge)은?

니티놀 와이어(nitinol wires)를 수백 가닥 서로 엮어서 구형으로 제작됐다. 뇌동맥류 치료를 위해 2007년 미국의 Sequent Medical에서 제작된 신의료 기술로 2018년부터 미국 FDA에서 승인 받고 사용 중인 최신 치료기구다. 특히 기존의 색전술로 완벽하게 치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목이 넓고, 사이즈가 크면서, 뇌혈관의 분지에 있는 동맥류에 아주 효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미병원 · 구미 금오라이온스클럽, 취약계층 환자 대상 의료비 지원 협약 체결

순천향대 구미병원은 지난 8월 22일 본원 외래관 회의실에서 구미 금오라이온스클럽과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구미 금오라이온스클럽은 1983년 창립된 봉사 단체로 사회복지시설 물품 후원, 쌀 나 눔, 연탄 봉사, 장학금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며 지역 대표 봉사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역 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민의 의료질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구미 금오라이온스클럽은 이날 협약식에서 취약계층 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200만원을 기부하였다.

민경대 병원장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이번 협약으로 취약계층 환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구미 금오라이온스클럽 이상진 회장은 "본 협약을 기점으로 양 기관이 함께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날 양 기관은 실질적인 교류와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인간 사랑'이라는 순천향 정신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나눈다'는 라이온스 정신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구미병원은 금오 라이온스클럽 뿐만 아니라 구미 제일MJF라이온스클럽, 구미 고아라이온스클럽 등 지역의 다양한 사회단체와 협약을 맺고 진료가 어려운 환경에 놓인 환자들의 후원을 꾸준히이어오고 있다.





구미병원, 신규 교직원 대상 '의료인용 아동학대 선별도구 FIND' 교육 개최



구미병원은 8월 29일 향설 대강당에서 신규 교직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인용 아동학대 선별도구 FIND' 교육을 개최했다.

FIND란?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의료인용 아동학대 선별도구(FIND: Finding Instrument for Non-accidental Deeds)로 신고 의무자인 의료인이 아동학대 의심상 황 발견 시 활용 가능한 지표이다. 항목으로는 ▲특별한 이유 없이 병원에 늦게 왔는 가 ▲보호자와 환자의 진술이 다르고, 내용이 자주 바뀌는가 ▲환자의 손상병력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 신체 검진 소견이 있는가 등 8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8개 문항중 2개 이상 양성으로 나오면 반드시 신고하고, 2개 미만이더라도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를 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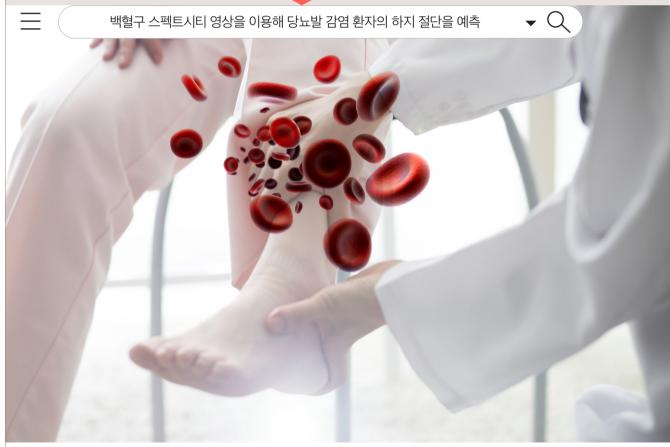
이날 교육은 신규 교직원들이 아동학대 판단 기준을 숙지하고 신고 의무자로서 전문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 되었으며 ▲의료인용 아동학대 선별도 구 FIND 소개 ▲FIND 교육 영상 시청 ▲FIND 미니테스트 ▲아동보호 실천 다짐 나누기 ▲수료증 수여 순으로 진행되었다.

수료증을 받은 신규 교직원들은 "아동 학대가 의심될 때는 FIND를 활용해 아 이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작 은 상처도 주의 깊게 관찰하겠습니다." 라며 교육 소감을 전했다.

한편,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은 2023년 2월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경북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으로 선정돼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의 치료와 의료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와 학대 조사 · 판단 과정에서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등 학대 피해 아동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보호를 위한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0 3:

'백혈구 스펙트시티'로 하지 절단 위험 예측 당뇨발 환자 하지 절단 예방으로 삶의 질 유지



핵의학영상인 스펙트시티를 이용해 당뇨병성 족부감염 환자의 하지 절단을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가 발표됐다. 당뇨병 환자는 발에 상처가 잘 생기는데, 이 상처에 감염이 발병하면 항생제 치료나 배농과 염 증 조직 제거 등의 수술적 치료, 또는 막힌 혈관 뚫기 등의 방법으로 다학제 치료를 하게 된다. 일부 감염이 심한 환자는 발을 절단하는 치료까지 받게 되는데, 이때 절단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임상 지표가 있다면 효율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현재까지 연구된 지표들은 주관적이고 임상 적용이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박수빈 순천향대서울병원 핵의학과 교수는 백혈구 스펙트시티를 이용해 당뇨병성 족부감염 환자에서 하지 절단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연구했다.

83명 환자의 93개 발 후향적 분석 … 87.3% 하지 절단 예측

핵의학영상인 백혈구 스펙트시티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백혈구를 분리한 후, 분리 된 백혈구에 미량의 방사성의약품을 표지하여 다시 환자의 몸에 투여한다. 이후 백혈구가 체내의 감염 병변 에 집적되는 것을 스펙트시티로 촬영하는데, 백혈구 스펙트시티는 체내 백혈구 분포를 영상화할 수 있는 유 일한 검사이다. 대상은 당뇨병성 족부감염이 의심되어 순천향대서울병원의 당뇨족 클리닉을 내원한 환자로, 백혈구 스펙트시티를 촬영한 83명 환자의 93개의 발을 후향적으로 분석했다.

당뇨발 환자의 백혈구 스펙트시티 분석 결과, 감염 부위의 백혈구 집적 정도가 높을수록, 영상에서 확인된 병변의 수가 많을수록 하지 절단의 위험이 높았다. 이전에 하지 절단을 했던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도 절단 위험이 높았다. 백혈구 스펙트시티의 정보와 하지 절단의 과거력을 종합하면 당뇨발의 87.3%에서 정확하 게 하지 절단을 예측했다.

하지 절단 피하고 삶의 질 유지하는 데 큰 도움

박수빈 교수는 "백혈구 스펙트시티 영상을 이용해 당뇨발 감염 환자의 하지 절단을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예후 지표를 개발한 연구"라며 "당뇨병성 족부감염 환자에서 백혈구 스펙트시티를 촬영하여, 감염이 심한 환자에서는 더 적극적인 다학제 치료로 치료 효과를 높여 하지 절단을 피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큰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수빈 교수의 논문 '당뇨병성 족부 감염에서 백혈구 스펙트시티 (SPECT/CT)를 이용한 하지 절단의 예측 (The usefulness of quantitative 99mTc-HMPAO WBC SPECT/CT for predicting lower extremity amputation in diabetic foot infection)'은 Scientific Reports지에 2024년 4월 22일 게재됐다.



박수빈 순천향대서울병원 핵의학과 교수

순천향대 부천병원 국내 최고 '희귀질환 클리닉' 조기정밀진단과 맞춤형 다학제 치료로 삶의 질 향상 기여



순천향대 부천병원 희귀질환 클리닉이 전문 진단 장비와 다학제 진료 시스템을 갖추고 희귀질환 환자의 적시 치료와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생후 14일 된 A 환아는 선천성 대사이상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 소견으로 순천향대 부천병원 희귀질환 클리닉으로 의 뢰됐다.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후 검사 결과 '프로피온산혈증' 으로 진단됐다. 프로피온산혈증은 선천적으로 특정 단백질 분해 효소가 부족한 질환으로,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처짐, 구토, 식욕부진,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심각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다행히 A 환아는 신속한 진단과 치료로 정상적인 발달을 이어가고 있다.

원스톱 진료 시스템 구축 ··· 정밀 진단과 맞춤형 다학제 진료

신영림 교수는 "신생아 선별검사 급여 확대로 여러 신생아 가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다수의 희귀질환이 타 질환으로 오인되거나 원인을 찾지 못하는 '진 단방랑'을 겪고 있으며, 치료가 늦어져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희귀질환은 80% 이상이 유전성 질환이고 대부분 소아청소년기에 증상이 시작되고 급격히 악화할 수 있어, 정확한 조기 진단과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희귀질환 클리닉은 원스톱 진료 시스템을 통해 진료 의뢰부터 진단, 치료 계획 수립까지 신속하게이뤄진다. 전담간호사가 환자 및 보호자와 상담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안내한다. '심층진찰 시범사업 기관'으로서 복잡한 증상으로 진단의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도 초진부터 체계적이고 정밀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맞춤형 통합 치료 접근법을 통해 환자의 상태에 따른 최적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건강 관리 지침과 영양 상담을 제공한다. 단일 질환에 국한되지 않는 희귀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내과, 피부과 등 다양한 진료과의 전문 의료진이 협력해 다학제 진료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희귀·극희귀·기타 염색체 이상질환 진단 요양기관 지정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2016년 경기 서북부 권역 최초로 보건 복지부로부터 '희귀·극희귀·기타 염색체 이상질환 진단 요양 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양한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해 왔다. 풍부한 진료 경험과 노 력은 환자 신뢰로 이어지고 있다.

신영림 교수는 "희귀질환 환자들은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환자 상태를 세 심히 살피고, 때로는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저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선별검사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고성능 액체크로마토 그래피-이중질량분석기를 이용해 아미노산·유기산·지방산 대사이상, 중증 복합면역결핍과 X-연관 부신백질이영양증등 70종 이상의 희귀 대사질환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한다. 면역측정장비를 이용해 선천 갑상선기능저하증, 선천 부신과형성증, 갈락토스혈증 등도 선별하고 있다. 더불어 리소좀 축적질환 스크리닝, 첨단 염색체 검사, 유전체 검사, 효소분석검사 등으로 거의 모든 종류의 희귀질환을 효과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신영림 교수는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에는 치료가 어려웠지만 최근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 많아졌다. 앞으로도 진료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희귀질환 환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35

신영림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희귀질환 클리닉장)





갑상샘이 우리 몸 대사에 필요한 갑상샘 호르몬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요오드라는 원료가 꼭 필요하다. 요오드를 선택적으로 흡수, 축적하는 갑상샘의 특성을 활용해 암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갑상샘암의 '방사성요오드 치료'다.

방사선 방출하는 요오드

자연계에 존재하는 요오드 중 방사선을 방출하는 요오드가 있는데 이를 방사성요오드라고 한다. 방사성요오드 역시 일 반 요오드와 성질이 동일해 체내에 투여하면 갑상샘에 흡수된다. 흡수된 방사성요오드에서 나오는 방사선으로 인해 갑상샘 암세포가 파괴된다.

갑상샘 암과 기능항진증 치료

방사성요오드 치료는 수술로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한 암세 포가 남아 있거나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에 시행한다. 또 완 벽하게 제거했어도 혹시 모를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시행한 다. 절제술 후 재발 우려가 매우 낮은 초저위험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갑상샘암 환자의 치료에 활용된다고 보면된다. 갑 상샘기능항진증 치료에도 사용한다.

수십년 된 안전한 치료법

방사성요오드 치료는 갑상샘암의 재발률을 낮추고, 완치까지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치료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을 이용한다는 점 때문에 두려워하고 치료를 꺼려하는 환자들이 많다. 안심해도 된다. 수십년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시행될 정도로 치료 효과는 물론 안전성이 입증된 치료법이다.

치료 전 준비사항

몸 안의 요오드 양을 줄여 갑상샘 암세포가 더욱 적극적으로 방사성요오드를 흡수하도록 만들어 치료 효과를 최대로 이 끌어 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갑상샘 호르몬 복용 중단 과 저요오드 식이 등이다. 갑상샘 호르몬 복용 중단은 치료 4 주 전부터 시작한다. 갑상샘 호르몬을 4주간 중단하면 부작 용이 나타날 수 있어 최근에는 중단하지 않고 주사제인 타이 로젠을 사용해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시행하기도 한다. 저요 오드 식이는 치료 2주 전부터 시작하는데 요오드가 들어 있는 음식과 약물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다.

외래 또는 입원해서 치료

방사성요오드 치료는 용량에 따라 외래 또는 특수한 격리병실에 입원해서 받게 된다. 치료에 사용되는 방사성요오드는일반적으로 캡슐 형태의 제제로 되어 있다. 1회 치료 시 한 번만 복용하면 되며, 복용 후에는 1시간 정도 가볍게 걷는 정도의 운동이 필요하다. 입원기간은 2~4일이며, 외래에서 복용한 경우엔 복용 후 바로 귀가할 수 있다.

임신은 치료 6개월 이후

임산부에게는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시행하지 않는다.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이라면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후 시점부터는 유산, 사산, 선천 기형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방사성요오드 치료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임신이 가능하다.

치료 후 생활관리

방사성요오드 치료 후 몸밖으로 나오는 방사선은 소량이지 만 다른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 문에 치료 후 7일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 다. 우선 다른 사람과 같은 방에서 취침하거나 장시간 함께 있지 말아야 한다. 특히 임산부나 어린이와의 접촉은 피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의 외출도 삼간다. 갑상샘 암세포에 흡 수되지 않은 방사성요오드는 대소변, 침, 땀 등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식기나 옷은 환자 본인만 사용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여러 주의가 필요하다.



이정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핵의학과 교수





발생 원인

대부분 요로결석은 요로의 기계적 막힘이 원인이며, 우리나라 보통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요로결석이 발생할 확률은 약 10% 정도로 비교적 흔한 질환이다. 주로 20대 이후에 발생하 여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계절적으로 더운 여름철에 생성된 결석 크기가 커져 가을 무렵 측복부의 극심한 통증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증상 및 진단

갑작스러운 옆구리 통증 및 하복부 불편감이 발생하면서 구역 질이나 구토 등의 소화계 증상이 동반되며 콜라색 혈뇨가 보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단순방사선이나 경정맥 조영술을 주로 사 용했으나 방사선투과성 결석, 결석 외 다른 요로 막힘의 감별을 위해 비조영 CT 검사가 최근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대 략 10% 이상의 빈도로 요로결석 환자에게서 혈뇨가 보이지 않 을 수 있으므로 혈뇨가 없다고 요로결석이 아니라고 할 순 없다.

치료 방법

기대요법 수동적인 치료로 통상 크기가 4mm 이하일 경우, 1개월 정도 지나면 약 70~80%에서 자연배출 될 수 있으나, 4~6mm의 돌은 50% 미만, 6mm 이상에서는 5% 미만의 자연배출이 기대된다. 환자의 통증이 중하지 않거나 당장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선택하는 방법으로 약물로 증상 조절하며 추적관찰 하는 방법이다.

체외충격파 쇄석술 및 요관내시경 수술 체외충격파를 이용한 돌깸술은 통원 치료로 가능하며, 대개 1~2회 정도면 돌이자연 배출될 수 있는 크기로 깨진다. 하지만 돌의 성분과 단단함 그리고 위치에 따라 3회 이상의 시술이 필요하거나 체외충격파에 반응하지 않는 결석도 존재한다. 요관내시경 수술은치료 성공률이 80~100%에 이르는 수술로 최근 내시경의 발전과함께 종합병원에서 많이 시행되는 치료법이다. 다만, 입원 및 마취가 필요하다는 부담이 있다.

피부 경유 콩팥돌 제거술 및 용해 요법 피부 경유 콩팥돌 제 거술은 결석의 크기가 비교적 크고 상부 요관이나 신장 내 위치 해 요관 내시경수술로 효과적인 제거가 어려운 경우, 통상 결석 의 크기가 2cm 이상이거나 체외충격파 쇄석술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선택하는 방법으로 피부에서 신우까지 내시경을 삽입하여 결석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용해 요법은 대개 소변이 산성인 상태에서 생기는 돌(요산석 등)에 소변을 알칼리화하는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주로 구연산 제제를 매일 복용한다.

예방과 관리 식이요법

수분 섭취 및 칼슘 제한 하루 소변량이 2리터 이상 되게 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위해 적어도 하루 10잔 이상의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 특히 운동 전이나 후 및 사우나 전에 충분한수분 공급이 중요하다. 또한 개인이 멸치나 우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칼슘 저하가 발생하면 오히려 요석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 과칼슘뇨증과 같이 대사 이상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지시가 있을 때만 칼슘을 제한하면 된다.

고기 섭취 및 수산이 포함된 음식과 염분 제한 육류에는 요산과 칼슘, 수산 등이 풍부하다. 그리고 요석을 억제하는 구연산의 생성을 막아 요석 생성을 촉진하게 된다. 결석이 자주 생기는 체질이라면 육류 섭취 제한이 필요하다. 수산이 많이 포함된 음식 중, 시금치/ 초콜릿/ 아몬드/ 땅콩/ 잣/ 호두/ 콜라/딸기/ 코코아/커피/ 술 등은 수산과 칼슘에 의한 요석 발생이촉진되므로 이런 음식들의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한다. 또한, 짜게 먹으면 대부분의 요로결석 생성을 촉진 시킨다.

과일, 아채 섭취 신맛이 나는 과일 (오렌지, 레몬, 귤, 자몽, 토마토 등)과 아채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음식에는 구연산이 많고 돌 생성 촉진 물질을 억제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기존 요로결석 병력이 있는 환자는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요검사 및 저선량 CT 등을 촬영해 결석의 크기가 작을 때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다.



김재호 순천향대 구미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로봇수술장비 다빈치Xi

손떨림 없고, 유연한 로봇팔

의사의 손을 대신하는 4개의 로봇팔은 사람 손과 팔처럼 유연하면서도 떨림이 없어 정교한 수술로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3D 고화질 입체 영상

의사가 15배 확대 영상, 고화질 입체영상을 보며 수술부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로봇을 조종하기 때문에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다.

특장점

수술 절개 부위가 작아 출혈, 감염 위험이 낮고, 통증도 작을 뿐만 아니라, 회복기간이 짧아 빠른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확대 된 시야



봉합 용이성



허혈시간 감소를 통한 수술시간 단축 및 수술 후 통증 겸감



빠른 획복을 통한 입원기간 단축



40 4:

교원양성과정 개선 대학 지원사업 선정

순천향대, 2024년 8월 학위수여식 개최...473명 졸업

순천향대(총장 김승우)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4년 '교원양성과 정 개선 대학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교원양성과정 개선 대학 지원 사업은 학교 현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수업 혁신을 이끄는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등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혁신을 지원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순천향대는 올해 사업에 '중등 단독형'으로 선정돼 연간 1억 7500만 원 가량의 사업비로 ▲예비교원의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비전 이해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혁신 역량 강화 ▲현장성·전문성 강화를위한 혁신 모델 제안 ▲고교학점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수업 혁신을 이끄는 본격적인 교육과정 개편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몽골 K-방역 국제 표준화모델 적용 역량강화 사업 순항

순천향대학교가 8월 19일부터 2주간 몽골 보건부 산하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몽골 K-방역 국제 표준화모델 적용 역량강화' 사업 관련, 초청 연수를 진행했다. 순천향대 산학협력단 국제개발협력센터는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 (KOICA)으로부터 위탁받아 순천향대 서울병원 유병욱 국제진료센터장(순천향대 국제개발협력센터장)의 총괄 아래 이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몽골현지 감염병 검역 및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국별보고 ▲질병관리청 방문 ▲휴대용 의료기기 실습 등을 비롯, 우리나라 감염병 관리 및 대응 체계 소개, 지방 정부의 의료 소외 지역 지원 체계 소개, 감염 분야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교육과정공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빙과 현장 견학으로 구성돼 눈길을 끌었다.





순천향대학교가 8월 22일 '2024년 8월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학사 학위수여식 은 각 단과대학별로, 석·박사 학위수여식은 인문과학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학사 303명과 일반대학원 석사 46명, 교육대학원 석사 3명, 건강과학대학원 석사 10명, 법과학대학원 석사 35명, 미래융합대학원 석사 15명, 창의라이프대학원 석사 34명, 일반대학원 박사 27명 등 총 473명이 학위를 받았다. 김 총장은 "멋진 대학생활과 학업에 정진해 준 졸업생 여러분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졸업 후에도 우리대학의 건학이념인 '인간사랑'을 기억하고 새로운 시대적 변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긍정과 도전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천향대. '제6회 대사질화 국제 심포지엄' 개최

순천향대(총장 김승우)는 8월 25일, 글로벌 산학·연·관 교류 협력 도모 등을 위한 '제6회 대사질환 조직 항상성 연구센터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사 연구 탐구'(Explore the Metabolism Research)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는 대사질환 분야의 최신 지식과 경륜을 나누기 위해 4개국 40여 명의 세계적 석학이 참가했다. 기조 강연에서 분자 생물학 분야의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는 UCSD(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석좌교수 알란 살티엘 교수는 'Adapting to Metabolic Stress' 라는 주제로 비만, 제 2형 당뇨병, 지방간 사이의 염증적 연관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한 최근의 연구 동향을 발표했다. 이밖에 순천향의생명연구원(SIMS), 하버드 의과대, 매사추세츠 공과대, 버클리, 유타, 샌디에이고, 서호주, 세계 최고 수준의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사질환 분야 최신 정보들을 서로 교류했다. 이종순 대사질환 조직 항상성 연구센터장은 "MHRC 심포지엄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킹을 통해서한국에서의 대사질환 연구 분야가 보다 더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17번방 선물, 이비인후과 전용 수술실 다시 오픈

서울병원은 8월 12일 이비인후 과 전용 수술방을 다시 오픈했다. 지난 4월 기존 이비인후과 수술방이었던 5번 방에 단일공로봇수술장비인 다빈치SP를 도입하면서 새로운 수술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병원에서는 본관 3층 수술실 남자탈의실을모자보건센터 3층으로 옮기고, 그 공간을 활용해 17번 수술방 1개와 수술환자 대기실, 탈의설



을 조성했다. 변형권 과장은 "짬깐 이었지만, 떠돌이 생활을 마감하고, 새로운 수술방을 갖게 돼서 기쁘고, 병원에 감사드린다"며 "환자와 병원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획득

서울병원은 최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부터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 인증을 받았다. 인증유효기간은 2024년 7월 16일부터 2027년 7월 15일까지다.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은 의료기관별 환자 의료기록, 진단정보, 처방내역, 검사 결과 등을 종합 관리하는 의료서비스 전자관리 시스템으로 2020년 전자 의무기록 인증제도가 본격 도입됐다. 올해부터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인증 여부에 따라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인센티브(의료질평가 지원금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중환자실·마취·급성기뇌졸중·약제급여 적정성평가 1등급

서울병원(병원장 이정재)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 한 중환자실·마취·급성기뇌졸중·약제급여 적정성평 가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

이정재 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환자안전을 위한 지속 적인 노력으로 모든 적정성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며 "8월부터 중환자실 확장공사를 시작해 10월에는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중환자를 돌 보게 된다"며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백예지 교수, 의료감염관리학회 연구비 지원



서울병원 백예지 감염내과 교수가 2024년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연구과제 공모에 선정돼연구비를 지원 받는다.연구과제는 '중환자실내카바페넴 내성 장내세

균 전파를 막기 위한 효과적 방안 고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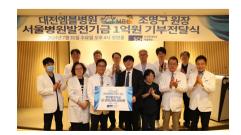
2024년도 QI중간 발표회 개최

서울병원은 7월 17일 오후3시부터 동은대강당에서 2024년도 QI중간 발표회를 개최했다. 김혜란 간호교육파트 간호사의 '간호사는 우리가 간호한다' 발표에 이어 총 22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정재 병원장은 "모르는 것을 편하게 물어볼 수 있고, 따뜻하게 가르쳐주는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과제발표로 끝나지 않고 환자안전에 적용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조명구 엠블병원장, 병원발전기금 기부

조명구 대전 엠블병원장이 7월 31일 병원을 찾아 1억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순천향대의대 4회 동문 인 조명구 원장은 대전에서 연중무휴 진료 아동병원 인 엠블병원을 개원해 남다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조명구 원장은 엠블병원의 현황과 미래비전 을 소개하고 "순천향대서울병원도 미래를 지향하는 병원, 환자와 보호자의 눈높이에 맞게 고급화를 지향 하는 병원, 젊음을 추구하는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 다"며 진심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2024년 상반기 사랑의 도서 바자회' 성료

'2024년 상반기 사랑의 도서 바자회'가 6월 10~22일 본관 1층 로비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2004년 처음 시작된 '사랑의 도서 바자회'는 다양한 장르의 도서를

개최됐다. 2004년 처음 시작된 '사랑의 도서 바자회'는 다양한 장르의 도서를 10~6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수익 일부를 국내외 저소득층 환자 의료지원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이번 바자회에서는 판매 총액의 25% 인 353만 원이 적립, 국내 취약환자 의료비 지원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신규간호사 첫돌 맞이 Cheer up! 행사' 개최

신규간호사 입사 1주년을 기념하는 '신규간호사 첫돌 맞이 Cheer upl 행사'가 7월 4일 본원 미래의학관 3층 의대 강의실에서 개최됐다. 지난해 3~6월 본원에 입사해 1년을 맞은 신규간호사는 50여 명이다. 행사는 동료들의 축하 영상 상영, 롤링페이퍼 전달, 포토타임, Cheer up 소통 게임 등으로 진행됐다. 선배들은 병원 환경 적응을 위해 노력한 후배들을 격려하고, 후배들은 지난 1년 간의 소회를 밝히며 서로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 편지 작성 시간을 가지며 뜻깊은 행사가 마무리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 통증캠페인' 개최

'호스피스·완화의료 통증캠페인'이 6월 27일 본관 1층 로비에서 개최됐다. 본 캠페 인은 암성 통증 및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관심 고취를 위해 캠 페인을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은 내원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약성 진통제 관련 OX 퀴즈 이벤트와 통증 관리 리플릿 제공 등을 통해 올바른 통증 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제2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12년 연속 의료 지원

부천병원이 부천시 대표 문화축제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를 12 년 연속 의료 지원했다. 본원은 7월 5~6일 부천시청 앞 소향로 차 없는 거 리에서 열리는 시민 참여 행사 '승천나 이트' 운영 시간에 의료진과 구급차를 파견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의료 지원 과 신속한 환자 이송 및 치료를 책임졌다.



인공신장실, 3회 연속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기관으로 선정

부천병원이 최근 대한신장학회 '인공신장실 인증평가'에서 3회 연속으로 '우수 인 공신장실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증 기간은 2027년 3월까지 3년간이다. 인공 신장실 인증평가는 말기신부전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관리 및 건전한 인공신 장실 운영을 위해 대한신장학회가 시행하는 질 관리 프로그램이다. 주요 평가 항목 은 ▲전문성 있는 의료진의 적정수 ▲안전하고 쾌적한 인공신장실 환경 ▲투석액 에 대한 미생물, 내독소 및 미세물질 수질검사 실시여부 ▲의무기록 및 보고 시행 여부 등 16개다.





중환자실·마취·뇌졸중 적정성평가 1등급 획득

천안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중환자실·마취·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했다. 중환자실 적정성평가는 3회 연속. 병원은 ▲전 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수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수 ▲중환자실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 여부 ▲중환자실 감염관리 활동 여부 ▲중환자실 사망률 등의 모든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마취 적정성평가는 100점 만점을 획득했다. ▲마취통



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 시간 ▲회복실 운영 여부 ▲마취 전 환자평가 실시율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점수 측정 비율 ▲마취 중·후 정상체온(35.5°C 이상) 유지 환자 비율 등 모든 평가지표에서 만점을 기록했다. 뇌졸중 적정성평가는 10회 연속 1등급을 받았다. ▲Stroke Unit(인력 및 시설) 구성 ▲정맥내 혈전용해제(t-PA) 투여율(60분이내) ▲조기재활 평가율 ▲조기재활 실시율 ▲Functional outcome scale 실시율(퇴원시) ▲입원 중 폐렴 발생률(출혈성/허혈성) 등 평가지표 대부분에서 만점을 받았다.

노동조합, 새병원 공사현장에 위문품 전달

천안병원 노동조합(위원장 최미영)이 새병원 건설 근로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위문품은 홍삼 음료 900병. 전달식은 새병원 건설현장 입구에서 최미영 노조위원장, 김대식 사무처장, 한화건설 박재연 부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미영 위원장은 "새병원 건설을 위해 장마철 고온다습한 날씨에 고생하시는 근로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데, 타국에서 근로를 마치는 날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병원 바로 북쪽 편에 지어지고 있는 새병원은 지상 15층, 지하 5층 규모이며, 2025년 1월경 완공을 앞두고 있다. 새병원 건설현장에는 하루평균 900여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보직자 및 중간관리자 워크숍 개최

천안병원이 2024년 보직자 및 중간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정책 방향 및 하반기 병원운영 계획'을 주제로 열렸다. '정부정책 등 의료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정부정책과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 ▲정부정책에 따른 의료질 지표관리 방안(김은석 적정진료실장) 등의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다. '하반기 병원운영계획'은 ▲새병원 이전 및 운영계획(김준혁 진료부원장) ▲2024년 하반기 병원 운영계획(박형국 병원장)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순천향대천안병원 박형국 병원장이 2024년 하반기 병원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홍성의료원과 심뇌혈관질환 관련 업무협약 체결

천안병원 충남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센터장 윤석만)가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의료원장 김건식)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8월 21일 오후 병원 건강증진센터 회의실에서 박형국 병원장, 윤석만 센터장, 김건식 홍성의료원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앞으로 심·뇌혈관질환 관련▲응급환자 이송·치료 및 진료체계 구축 ▲심·뇌혈관질환 전문인력 교육 및 예방·관리에 필요한 홍보 진행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정보 교류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왼쪽부터 윤석만 충남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장, 김건식 홍성의료원장, 박형국 순천향대천안병원장

응급의학과 이한유 교수, 임상술기교육연구회 '최고 강사상' 수상

천안병원 응급의학과 이한유 교수가 임상술기교육연구회 로부터 '최고 강사상'을 수상 했다. 임상술기교육연구회는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임 상술기 교육과 연구를 수행



하는 전문단체다. 응급의학 내 임상술기의 개발과 표 준화, 교육 및 훈련 등을 담당한다. 최고 강사상은 연 구회가 매년 학술대회에서 최고의 강연자에게 시상하 는 상이다. 선정은 참석한 전문의, 전공의, 119구급대 원들의 현장 직접 투표로 이루어진다. 금년 학술대회 (16차)는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7월 4일 열렸다. 이 날 이한유 교수는 '어깨관절 탈구와 정복(잘 따라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잘 안될까?)'을 주제로 강연했다.

구미병원

구미병원, '제 3차 마취 적정성 평가 최우수 1등급' 획득

구미병원은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제3 차 마취 적정성 평가에서 '3회 연속 최우수 1등급'을 획득했다. 마취 적정성 평 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에서 마취 영역 의료 질 개선 및 마취 환자의 안전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8 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마취 실시 건수가 30 건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시간 ▲회복실 운영 여부 ▲마취 전 환자 평가 실시율 ▲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점수 측정 비율 등 총 9개 항목으로 평가됐다. 평 가 결과, 구미병원은 마취 전 환자 평가 실시율,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 점수 측정 비율, 마취 중 · 후 정상체온(35.5°C이상) 유지 환자 비율 등에서 100점 만 점을 기록하며 종합점수 97.0점을 획득해 참여한 의료기관 전체평균(89.7점), 동일 종별평균(91.5점) 대비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민경대 병원장은 "3 회 연속 최우수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 교직원이 환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 해 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 하여 마취 영역 의료질을 향상하 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미병원, '2024년 감염관리의 날' 행사 개최

구미병원은 8월 21일부터 22 일까지 '2024년 감염관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감염관리 팀의 주최로 진행된 이날 행사 는 환자 및 보호자,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기본 지 키기(손 위생 측정) ▲격리지침



바로 알기 ▲위기관리 대응 역량 강화 ▲감염관리 OX퀴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병원 곳곳을 순회하며 교직원과 내원객들에게 감염관 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했다. 이 밖에도 교직원 대상으로 보호구 착 · 탈의 및 도상훈련을 실시하여 의료기관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비 했으며 동시에 감염관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민경대 병원장은 "구미병원은 매년 감염관리의 날 행사를 실시하며 감염관리 중요성 인식과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질 높은 의 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자 안전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구미병원, '2024년 환자안전 주간행사' 개최

구미병원은 지난 8월 5일부터 9일까지 안전한 환자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2024년 환자안전 주간행사'를 개최했다. 순천향 대 구미병원은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가에서 지정한 '환 자안전의 날'(9월 17일)을 함께



하고자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행사를 매년 이어오고 있다. 교직원, 환자 및 내원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모든 진료과정에서의 환자 참여가 환자안전의 시작' 임을 강조하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환자안전문화 인식도 설문조사 ▲가로세로 낱말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밖에도 원내 곳곳에 있는 내원객들을 직접 찾아가 퀴즈타임도 진행했다. 행사에 참 여한 환자 및 내원객 모두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민경대 병 원장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진 뿐만 아니라 환자, 보호자 모두 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진행 해 모두에게 신뢰받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병원, 전 교직원 대상 CS교육 실시

구미병원은 8월 19일부터 21일 까지 본원 향설대강당에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고객서비 스(Customer Service)교육'을 실시했다. 고객지원팀이 주최 한 이번 CS교육은 '직원들의 서



향상'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양지수 (이로운 컨설팅) CS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한 CS교육은 ▲환자·보호자 불만 사례 공유 ▲긍정적인 소통방법 ▲불만고객 대응 시 올바른 태도 등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교육에 참 석한 한 교직원은 "환자와 소통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스킬을 배울 수 있었고, 환 자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이번 교육이 업 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민경대 병원장은 "고객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수준 높은 서비스 마인드가 중요하다" 며 "지속적인 CS활동을 통해 직원들의 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힘쓰겠다"고 말했 다. 한편, 구미병원은 다양한 CS관련 교육과 활동을 통해 서비스 품질 강화 및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SCH NETWORK

